

## 통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후보

### 노무현을 사랑하는 광주·전남 500인 지지선언문

의향·예향 광주!

일제하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하여 근·현대사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의 심장부였던 광주에서 정정당당하고 신뢰가 충만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주당 경선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80년대 광주항쟁이후 우리 광주·전남인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왔고, 마침내 97년 역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어두웠던 군사 정권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거리에서 투표장에서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국민의 정부탄생은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온 국민이 노력해 만든 피와 땀의 결정체인 것이다.

어떻게 만든 정권교체인가? 어떻게 이룩한 국민의 정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과 사이비언론의 방해·민주세력의 분열로 우리 사회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민주세력은 군사 정부 아래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의 끈을 놓고 있으며, 누구누구 대세론에 발목이 잡혀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개혁의 장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97년 정권교체의 신화는 2002년에도 정권 재창출로 다시 이어져야 한다.

그 시작을 우리 광주·전남인들이 모여 준비하고자 한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광주·전남인의 사명이 결코 정권교체로 끝난 것은 아니며,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적 개혁과 발전의 향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가 수구세력의 저항에 발목이 잡힌 근거에는 기만적 지역주의라는 망국적 병마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노력과 열망마저도 지역주의라는 울가미에 걸려, 이제는 민주적 개혁마저 후퇴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망국적 지역 감정에 분연히 맞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외쳐온 정치인은 누구인가?

바로 노무현이다.

그는 일관된 원칙과 소신으로 혼탁한 현실에서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이제는 상식과 공정한 룰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숙원인 통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구언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개혁과 정의의 지도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무현을 지지한다.

민주화 투쟁의 외길을 걸어온 우리 광주시민은 정통민주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에서 정통성있는 인사가 후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나라의 지도자는 결코 친일수구특권 세력이어도 안되며 기회주의적 편력을 가진 인물이어서도 안된다. 일관된 철학과 신념, 열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을 때 비로소 2002년 대선에서 전국민적 지지와 축복 속에 진정 우리가 열망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부를 이어갈 정통성있는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핵심은 신뢰의 회복이다.

각종 게이트와 부정부패의 문제도 결국은 원칙과 신뢰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노무현 후보는 불신의 정치에서 보기 드물게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온 정치인이다. 희망이 없는 대세론에 역사의 물줄기를 맡겨둘 수는 없다. 우리 시대의 희망은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80년 광주항쟁이 그랬고, 87년 6월 항쟁과 97년 정권교체가 그러했다. 2002년 대선도 국민적 역량으로 희망과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바로 개혁을 바라고, 참된 민주복지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승



리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개혁통합세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일관된 철학으로 우리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통합, 남북화해와 조국의 통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임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여기 모인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년 2월 18일

통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후보 노무현을 사랑하는  
광주·전남 500인 지지선언 공동대표 김하경외 500명 일동